

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醫學



作者 미상 17C 작품으로 추정

17세기의 齒科醫學에 關係했던 作品들은 항상 관중에 둘러 쌓여서 그럴듯한 옷을 입은 이빨은 사람(아직 치과의사가 아닌)에 의해서 연출되는 하나의 무대였다.

그들은 즐겁히 실내나 실외나 자기집이나 환자 집이나를 막론하고 조잡한 기구로 발치시술을 하였다. 술자는 왼쪽 다리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뒤에서 양손으로 환자를 고정하면서 하악 소구치를 빼고 있는 장면이다. 무엇인가 흥미에 찬 구경꾼, 초라한 소년의 뒷모습, 중후한 뒷건물, 등장인물들의 밝은 표정과 풍만함에 무엇인 여유가 있어 보인다.

치료대 위에 보이는 무엇인가 반쯤 들어 있는 병은 어디에 쓰던 것일까?



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

寶城合金 寶城齒科技工所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
代表 朴允三
☎ (253) 3411 · (255) 3024